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전주 출신 김법윤, 김제 출신 박영춘 의병이 대표적이다.

김법윤 의병은 19세에 동지를 모아 일본군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이다 체포돼 교수형을 당했고, 박영춘 의병도 의병활동을 하다 일본군의 총칼을 맞았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순국한 여학봉, 최종갑 등도 의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도는 새로 확인된 무명의병을 모두 독립유공자로 추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제서야 인제야 선인들의 명단과 활약상을 찾아 송구스러우면서도 3.1절을 앞두고 더 많은 분의 얼을 기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의병들에 합당한 예우를 갖출 여러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28 20:5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